

터키어 모국어 화자들의 한국어 학습 시 나타나는 오류 분석

김성주(양카라大)

차 례

1 들어가기

2 음성 음운 부분의 오류

2.1 음성

2.2 음운 현상

2.3 초분절 음소

3 문법

3.1 형태 통사 담화

3.2 문법 범주

4 어휘

5 결론

1 들어가기

이 글은 터키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화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나타나는 오류들을 음성 음운과 형태 통사 담화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 또는 국어 교육의 대상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한국인, 한국어와 동시에 다른 외국어를 모국어로 또는 모국어에 가깝게 구사하는 이중 언어 구사자,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외국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화자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은 터키어 화자들의 오류이므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화자들의 오류와는 구분된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다시 해당 언어권과 교육 환경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먼저 언어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학습자의 모국어가 한국어와 계통을 같이 하는 언어인가 혹은 한국어와 유형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언어인가이며, 둘째는 중국, 일본과 같이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가이다.

교육 환경이란 미국, 유럽, 중국, 일본과 같이 한국어가 해당 언어로 어느 정도 연구되어 있고, 한국어에 대한 정보를 해당 언어로 상당 부분 얻을 수 있는 환경과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과 같이 해당 언어로 한국 또는 한국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은 계통상 한국어와 관련이 있거나 적어도 한국어와 언어 유형적인 면에서 많은 공통점(어순, 교착적 성격 등)을 가지는 그러나 해당 언어로는 한국어나 한국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터키어 화자들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울 때 생기는 오류에 대한 분석과 가능하면 오류들을 수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 글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글의 연구 대상자들이 속한 터키와 그들의 언어인 터키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논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터키는 유럽 대륙의 발칸 반도 동쪽 끝과 아시아 대륙의 아나톨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슬람문화권과 유럽 문화권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세속주의 이슬람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터키 내에는 튀르크 민족주의, 이슬람주의, 유럽 지향 세력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터키어는 튀르크 어족의 한 언어로서 중국 서북방 일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서진하여 이란을 거쳐 10 세기에서 13 세기 사이에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한 사람들이 쓰던 언어와 원래부터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구사하던 언어가 혼합하여 발달한 언어다. 고대(돌궐 시대) 이후로 중앙아시아와 서진 도중,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한 이후에도 페르시아어와 아랍어의 영향을 계속 받았고, 중세 시기인 오토만제국 시대에는 상류층 언어와 문학어로는 페르시아어와 아랍어가 쓰였기 때문에 주로 어휘 부문에서이지만 통사에서도 페르시아어와 아랍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편 외국어 학습에서 생기는 오류는 대상어(한국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모국어(터키어)와 같이 사용하므로써 생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담당자는 학습자들의 오류를 통해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오류는 한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다.

오류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도 있으며,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도 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개별 언어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여, 개별 언어권 화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은 터키어 화자들이 초급 단계의 한국어를 학습을 할 때 생기는 오류들을 가능하면 음성, 음운, 형태, 문법, 담화의 모든 언어 영역에서 다루고자 했다.

2 음성 음운

2.1 음성

한국어의 자음 중 평음 ㄲ, ㄴ, ㄷ, ㄹ 등은 어두에서 무성음인 [k] [t] [p] [i]로 발음되는데, 터키어 화자들은 어두의 무성 자음들도 유성음 [g] [d] [b] [ε]로 인식하고 발음한다. 그런데 터키어 화자들이 한국어의 어두 무성 자음을 유성으로 발음하더라도 한국어 화자들이 변별적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자음의 경우 중요한 큰 문제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보다는 오히려 경음에서 발생하는데, 터키어 화자는 한국어의 평음 [p] [t] [s] [i] [k]와 경음 [p'] [t'] [s'] [i'] [k']를 구분하지 못한다(예, 4 월딸(4 월달), 싸우기(싸우기), 때문에(때문에), 조금씩(조금씩), 롬고(짧고), 분만(뽀만)). 한국어에서 경음이 가지는 변별력은 큰 것이므로, 초급 단계에서도 경음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 성대 긴장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동일 자음이 반복적으로 발음되는 'gitti, hakkında' 등과 같은 단어를 이용하여 평음과 경음의 차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고급 한국어 사용자도 평음과 경음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에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을 볼 때, 평음과 경음의 구분이 터키어 화자에게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ㄹ'은 어두에 오면 탄설음 [l̥]로 받침에 오면 설측음 [l]로 발음되는데, 터키어에는 탄설음 [l̥]는 없고 그와 가까운 설전음 [r]가 있어, 터키어 화자는 어두의 'ㄹ'을 설전음 [r]로 발음하게 된다. 어두의 'ㄹ'을 탄설음 [l̥]가 아닌 설전음 [r]로 발음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받침으로 쓰이는 'ㄹ'을 발음할 때 터키어 화자들이 소위 'dark l'로 불리는 이중 조음 [ɹ]로 발음하는 것은 청각적으로 좋지 못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터키어 화자들이 받침에 오는 'ㄹ'을 이중 조음 [ɹ]로 발음하는 것은 터키어가 영어와 같이 모음 다음의 /l/를 자동적으로 이중 조음 [ɹ]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터키어에도 페르시아어, 아랍어 등에서 온 외래어의 경우 모음 뒤의 /l/를 [l]로 발음하므로 순수 터키어(예, bal [baɫ], geldim [geɫdim])와 외래어(예, hal [hal], kabul [kabul])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받침으로 쓰인 'ㄹ'의 음가를 교정시킬 수 있다. 받침 'ㄹ'을 이중 조음 /ɹ/로 발음하더라도 변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받침 'ㄹ'을 이중 조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한국어 화자를 상당히 거슬리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정이 그다지 어렵지도 않으므로 교정시키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그 이외에 자음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로는 받침 'ㄷ' [d] 뒤에 모음이 올 경우 [g]를 첨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터키어에서 연구개 비음 [ŋ]은 수의적으로만 나타나며 터키어의 음운 체계상으로는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듯하다. 이것 또한 지속적인 지적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다. 또한 어두의 'ㄹ'을 격음 [ɹ̥]로, 어두의 'ㅍ'을 [p̥]로 잘못 발음하거나 읽는 경우가 있는데(예, 죽였어요(죽였어요), 책(책), 천화(전화), 차동차(자동차)), 터키어에는 구개

과찰음의 경우 평음(c [i])과 격음(ç [i^h])이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

한편 '많이' [mani], '좋아' [ioa] 등은 [h]가 발음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터키어 화자들은 [h]를 발음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것은 첫째 터키어의 철자 체계가 순수 표음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표기된 모든 철자를 발음하므로 한국어를 발음할 때도 표기된 철자를 모두 발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또 터키어에는 '좋아'를 발음할 때와 같이 두 개의 모음이 연속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h]를 발음하는 것이 편한 것으로 보인다.

터키 화자들이 모음에서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는 '羨'의 발음이다. 그것은 물론 터키어에 '羨' [ɯ]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급 한국어 사용자까지 '羨'를 쉽게 인식하지 못하며, 교정하지 못하고 '薰'와 혼동하는데 있다(예, 결혼(결혼), 축구 선수(축구 선수), 보스(버스), 존화(전화), 오서 오십시오(어서 오십시오), 할머니(할머니), 소금하고 물을 넣고(넣고), 기간은 청(총) 십이년 걸립니다, 이곳은(이것을), 벽잡합니다(복잡합니다). 한국어에서 '羨'가 가지는 기능부담량을 고려할 때 '羨'의 인식과 발음은 올바른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는 쉽게 가르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다. '羨'와 '薰'가 조음 위치가 비교적 같으면서, '羨'가 평순 모음이고 '薰'가 원순 모음인 점에 착안하여, '薰'를 발음 직전 상태로 유도하여 입술 모양을 원순에서 평순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교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터키 화자들에게 가장 교정이 어려운 것이 자음에서 경음의 발음과 인식이며, 모음에서 '羨'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터키어 화자들은 '藹'와 '遂'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터키어에는 전설 개모음과 폐모음 사이에 오직 [e] 하나의 모음이 있기 때문이다(예, 세(새) 이름, 세로운(새로운), 트럭을 새워서(세워서), 50 번째(50 번째), 함께(함께), 위해(위해), 현대적인(현대적인), 네 몸이(내 몸이), 올 때(때), 제일(제일) 큰). '藹'와 '遂'는 서울 지역어에서도 점차 통합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羨'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큰 문제점은 아니지만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단은 한국어 표준 발음에서 '藹'와 '遂'를 구분하기 때문에 표준 발음을 먼저 가르치고, 실제로는 쓰기 교육에서만 그 차이를 강조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에 차이가 있고, 모음 하나를 정확하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교육자와 학습자가 소요하는 노력의 시간을 생각하면 '藹'와 '遂'의 경우, 어떤 교육 방향이 바람직한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음운 체계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목격되는 것은 한국인은 훈련에 의하지 않으면 자음을 단독으로 발음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터키인은 모음의 도움 없이 자음을 단독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영어의 'strike'을 [sItIraikI]로 발음한다. 즉 어두나 어중은 물론 어말에 모음과 결합되지 않는 자음이 있을 경우에는 [I]를 삽입시켜 발음한다. 이런 현상은

어두와 어중의 경우 [st]와 [sItI]를 한국인 스스로가 잘 구분하지 못하므로 큰 문제가 없지만 어말의 경우 주로 선행어의 자 모음 양상에 따라 달리 쓰이는 조사의 쓰임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앙카라의 유명한 관광지로 'anıt kabir [anItkyabir]'라는 것이 있는데, 터키인들이 여기에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를 연결할 경우 자연스런 한국어는 각각 '-가'와 '-를'이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행어의 끝음운의 자 모음 상태에 따라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를 연결시키는 규칙에 따라, 각각 '-이'와 '-을'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anItkyabiri], [anItkyabirI]으로 발음한다(예, Atatürk 은(아타튀르크는), Atatürk 이(아타튀르크가), 로보튼(로봇은)). 터키어 화자들이 한국어과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발음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한국어 화자들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므로 한국어의 경우 자음이 단독으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만약 어떤 단어가 자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I]가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어를 쓸 때에는 자음 동화나 모음 동화와 같은 음운 현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어에는 표기법과 실제 발음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를 터키어 화자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예, 한 번 보는 건만(것만) 못했습니다, 실라(신라) 등). 음운 규칙에 의한 잘못된 표기는 먼저 음운 규칙의 체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지적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3 문법

3.1 형태 통사 담화

형태 통사 담화 부분에서 발생하는 오류 중에는 학습자가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많다. 터키어는 격표지(격조사)를 가진 언어이지만 주격 표지가 없으며, 대신에 터키어는 동사에 연결되는 일치 표지(인칭 어미)가 발달되어 있어, 터키어 화자들은 인칭 어미에 의해 주어를 인식한다. 그러므로 터키어는 대화체에서 흔히 주어가 생략된다. 동사에 연결된 인칭 어미만으로 청자는 문장의 주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터키어 화자들은 한국어를 말할 때도 아예 주어를 쓰지 않거나(이 경우에는 목적어에 주격 조사를 붙이기도 한다), 주어를 말하더라도 주격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한편 보조사 '-도', '-만' 등이 주어나 목적어로 연결될 때는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가 쓰이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철수가도', '영희가만'과 같이 쓰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1 가)는 주어 표지가 (1 나)는 목적어 표지가 생략된 오류들이고, (1 다)는 조사를 중복해서 쓴 예들이다.

(1)

가. 지진을 가장 느껴진 곳인 부르사 카라자베이에서 공포(→공포가)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터키 해협(→터키 해협이)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스탄불이 볼만한 도입니다.

나. New York Post 신문이 대규모로 이 소식을(이 뉴스를 위하여)
자리(→자리를) 주었어요.

핸드폰(→핸드폰을) 무료로 줍니다.

부적합한 건문(→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의 기분이 많이 좋고 아이가도 웃고 있습니다.

한국 식당은도 있습니다.

한국어의 경우도 구어에서는 조사가 생략 가능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의 올바른 인식은 필수적이다. 또한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도 적어도 초급 단계에서는 주격 조사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게다가 터키어는 한국어에 비해 태(態 Voice) 체계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 주어를 아예 목적어로 파악하여 목적격 조사를 붙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한국어 여격 조사의 특이성으로 말미암아 여격 사용에도 흔히 오류가 발생한다. 우리말 여격은 선행어가 [+유정성]이면 '-에게'가 쓰이고 [-유정성]이면 '-에'가 쓰인다(예, 아기에게 우유를 준다, 나무에 물을 준다). 그러나 터키어에는 여격이 선행어의 유 무정성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격어미가 쓰이므로 터키어 화자에 따라서 여격 조사로 '-에'만을 쓰거나, 아니면 선행어가 무정 명사인 경우에도 '-에게'를 쓰는 경우가 있다.

터키어의 관계문 주어는 속격(genitivie) 형태를 취하는데, 이런 영향으로 한국어의 관계문 주어에도 속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현장에서는 주어일 경우에는 항상 주격 조사를 써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초급 단계에서는 수정이 쉽지 않은 것 같다.

관계문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로는 관계문 표지(관형형 어미)를 들 수 있다. 한국어의 관계문 표지 체계는 복잡한데, 동사와 형용사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표제 명사에 따라서 특정 관계문 표지를 취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사의 경우에는 과거 시제에 '-(으)遁', 현재에 '-는', 의미 미래에 '-(으)鱗'이 쓰이는데 비해 형용사의 경우에는 '-(으)遁'이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쓰이기 때문에 터키어 화자들이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혼동하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특정 관계 표지나 명사화 표지를 지배하는 표제 명사들이 있어서 문제의 양상을 한층 복잡하게 한다. '전(前)'은 항상 명사화 표지 '-기'를

지배하고, '후(後)'는 항상 '-(으)遁'을 지배한다. 또한 '때'는 항상 '-(으)鱗'을 지배하여, 만약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었을 때'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으)遁 때'와 같이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게다가 국어의 관계문 표지에는 회상 관계 표지 '-던'도 있어, 외국인이 정확한 관계문을 구사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다. (2 가)는 관계문과 명사절의 주어에 관형격을 쓴 예이며, (2 나)는 관계문 표지(관형형 어미)를 잘못 쓴 예들이고, (2 다)는 표제 명사에 따라 관계문 표지를 잘못 쓴 예들이다.

(2)

가. [Alaaddin 의(→알라딘이) 빨리 빨리 운동하고 그들이 구하다고] 합니다.

[공항 임원들이 비행기의(비행기가) 불이 타서 10 건물의 손해 보는] 밝아졌습니다.

나. 그러나 이스탄불의 아름다움을 쓰는(→쓴) 시와 부르는(→부른) 노래들을 ...

이스탄불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느낀) 것,

공화국 기간 전까지 입은 옷들은, 지금 입은(→입는) 옷과 많이 달라요.

VOILA 검색약을 하면 마음에 들(→들) 거예요.

다. Izmir 에 가는 것을 이해하는 후에(→이해한 후에) ...

다시 햇빛으로 녹이기 때문에(→녹이기 위해) 확대경은 봅니다.

Yedigün 이 마시을 위하여(→Yedigün 을 마시기 위하여) 서두르지 않다고 합니다.

동사의 격지배와 관련된 오류도 자주 발생하는 오류 중의 하나다. 터키어의 'yardım etmek(돕다)'과 'korkmak(겁이 나다)'은 각각 여격과 탈격을 지배하는데 이런 이유로 한국어의 '돕다'와 '겁이 나다'를 쓸 때도 '철수에게 도와요', '그것한테 겁이 나요.' 등을 사용한다. 동사의 격지배 차이로 말미암은 오용은 비단 터키어 화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각 언어마다 동사의 격지배가 다르므로 해당 언어의 특수 격지배 동사의 목록을 만들어 가르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3 가)는 터키어에서 여격을 지배하는 동사들을 잘못 쓴 예들이고, (3 나)는 탈격을 지배하는 동사들을 잘못 쓴 예들이다.

(3)

가. 그리고 "엄마, 요구르트"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봅니다.

이 섬에서 한 괴물이 Aladdin의 친구들에게 공격합니다.

나. 1907년 육군 사관학교에서 소위로 졸업했다.

아이들도 지진에서 겁냈다.

담화 상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오류는 주격 조사 '-이/가'와 주제 또는 대조 조사 '-은/는'을 잘못 쓰는 것과 청대 대우법의 화계를 일관되게 쓰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식 담화에서는 주제가 처음 도입될 때 그 주제에 주격 조사 '-이/가'가 사용되고, 이후 동일한 주제가 반복될 때 반복된 주제에는 '-은/는'이 사용되며, 문장 또는 담화에서 대조할 명사구가 있거나 상정이 가능할 때는 주격 조사 '-이/가'나 목적격 조사 '-을/를'을 쓰지 않고 주제 또는 대조 조사 '-은/는'을 써야 하는데, 터키어에는 주제나 대조를 표시하는 표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하나의 글을 자연스럽게 쓰기 위해서는 청자 대우 형식을 통일해야 하는데, 하나의 담화 안에 '합니다'체와 '한다'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담화에는 보조 동사의 오용에 대한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는 초급 단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4)

가. 어떤 국민들이(→어떤 사람들은) 약간 집에 못 들어갔다.

나는(→제가) 제일 사랑하는 곳이 Ortaköy 그리고 İstiklal 거리입니다.(담화의 첫 부분)

나.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동생, 여동생의 축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힘을 빌려야 할 때가 있다(→있습니다).

이stanbul이 상고 시대 이래로 많은 문화가 번성했습니다.

이stanbul이(→이stanbul은) 터키기도, 그리고 세계도 제일 좋은 도시입니다.

이stanbul이(→이stanbul은) 많은(많이) 복잡하고, 아시아와 유럽이 서로 매다는 도시입니다.

3.2 문법 범주

터키어 화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에는 문법 범주에서도 많은 오류를 보인다. 문법 범주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대우법 특히 청자 대우법이다. 한국어에서 청자 대우 형식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해요'체인데, 다른 청자 대우 형식이 화자와 청자의 나이,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적절한 사용 환경이 정해지는데 비해, '해요'체는 상대적으로 사용 환경이 넓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 터키어 화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해요'체가 아니라 '합니다'체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합니다'체는 청자 대우 형식 중 가장 높은 단계를 차지하기 때문에 '합니다'체를 들은 한국인은 비록 상대방이 '합니다'체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부담을 느낄 수는 있으나, 이러한 반응은 적절하지 못한 청자 대우 형식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불쾌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소한 오류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 잘 모르는 경우(처음 만난 경우를 포함하여)에는 '합니다'체의 환경이 비교적 넓어진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둘째 '합니다'체는 선행어의 음운 환경에 따라 '-입니다'와 '-습니다'가 연결되는데, 한국어에서는 선행어의 음운 환경에 따라 연결되는 어미류가 달라지는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합니다'체 다음으로는 '해요'체, '하세요'체, '해'체, '한다'체의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해요'체와 '하세요'체는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한편 대화에 사용되었을 때 '합니다'체보다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가르치는 청자 대우 형식이다.

그러나 청자 대우법은 단순히 교육 현장을 통해서 지식(정보) 전달만으로는 완전한 습득이 불가능하다. 학습자 스스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형식을, 저런 경우에는 저런 형식을 쓴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학습자들이 젊은 학생들이므로 교육 현장 이외에서 한국어를 접하는 것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합니다'체를 써야 한다고 강조해도 곧 '해'체 또는 '한다'체를 쓴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 이외의 곳에서 접하는 한국인이 극히 소수에 불과한 교육 여건(터키)을 생각할 때, 학생들의 이러한 경향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초기 교육에서 '합니다'체를 더 강조하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곧 '해'체와 '한다'체를 배워서 쓴다 하더라도 선생님에게 '해'체와 '한다'체를 쓰는 일이 언어 문화적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을 그때그때 지적해서 화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교육 현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합니다'체, '해요'체의 교육을 강화해서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한편, 청자 대우법의 적절한 사용은 단지 언어학적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국어 시간 이외에 역사, 문화론 수업에서도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문법 범주 가운데서 터키어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로는 시제 범주도 있다. 터키어의 시제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 형식이 각각 두 개씩 있고, 하나의 미래 시제 형식이 있다. 과거와 현재에서는 언어학적으로 시제와 시상의 구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언어 사용의 면에서는 터키어의 과거 시제는 한국어 과거 시제 '-었-'과 터키어의 현재 시제는 한국어의 현재 시제 '-는-'과 어울리므로 큰 문제가 없다. 한국어의 현재 시제 '-는-'은 현재라는 시제 범주와 함께 진행이라는 상 기능이 있는데, 터키어에는 정확하게 현재 시제 범주가 없고, 습관상과 동시에 현재 시제 기능을 하는 '-Ir'와 진행상과 동시에 현재 시제

기능을 하는 '-Iyor'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어의 '-는-'은 터키어의 두 시제 형식을 포함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 과거에도 터키어에는 화자의 과거 사실 인식이 직접적으로 들어서 이루어졌는지(-dI-), 제 3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mIş)에 따른 구분이 있으나, 대당 한국어 시제 형태는 '-었-'으로 사용할 경우 큰 문제는 없다. 이것은 터키어를 한국어로 통역 번역할 때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터키어로 통역 번역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 가)는 종결형의, (5 나)는 관형형의 시제를 잘못 쓴 예들이며, (5 다)는 서법 표지를 잘못 쓴 예이다.

(5)

가. 그 뼈가 누구의 뼈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검시를 하겠습니다(→했습니다).(글의 내용상 과거임)

Düzce 에서 소식 듣지 못하는다고(→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전술적과 경제적으로 중요하다(→중요하다).

나. 그리고 오스만제국 기에서(→시대에) 남았던(→남아 있는) 땅이(많은) 기념 ...

9 월부터 10 달러로 팔리는(→팔릴) 것을 밝혔다.

세계에서 발견한(→발견할) 땅이 없어요.

그러나 Fanta 가 병에서 얼기(→얼었기) 때문에 마시지 못합니다.

다. 사람들을(사람들은) 이후로 이성적이 되할(→되리라고) 생각이다(생각됩니다).

미래 시제의 경우 한국어에서 미래 시제로 쓰이는 '-(으)ㄹ 것-', '-겠-' 등이 시제 기능보다는 의지, 추측 등의 서법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시제에 관한 한 물리적 시간과 같이 비교적 과거, 현재, 미래의 삼분법이 발달한 터키어의 화자에게는 미래 시제의 사용에 가끔씩 오류가 생긴다.

그러나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시제에 관한 오류는 종결형에서보다는 관형형에서 자주 일어난다. 앞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어의 관계절 시제가 종결형 시제 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가 있으며, 표제 명사에 따라 지배하는 관형형 표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종결형에서 현재 시제 표지로 쓰이는 '-는-'을 형용사의 현재 관형형으로 쓴다든지(예, 좋은 사람), 반대로 동사의 현재 관형형 표지로 '-(으)ㄹ'을 쓰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예, 간 사람).

터키어의 태 체계는 한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데, 한국어의 경우 태 범주로는 사동과 피동을 거론할 수 있으며, 그나마 파생 접사에 의한 파생 태 동사들은 그 수가 한정적이다. 그러나 터키어는 사동과 피동 접사가 상당히 생산적이며, 상호태와 채귀태도 존재한다. (6 가)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능동을, (6 나)는 피동을, (6 다)는 사동을 잘못 표현한 예들이다.

(6)

가. 차와 식사 함께 먹어집니다(→사람들이 차와 식사를 함께 합니다).

요즈음 Türcell 사랑하는 세 사람과 %25 더 싼 말하기 캠페인 시작시키니다(→광고를 시작합니다).

나. 어제 13 미터 한 죽은 고래를 찾아지었다(→고래가 발견되었다).

터어키에 관관철에 크게 손해를 입었다(→입혔다).

우주 여행에 대해서 러시아에 2 천만 달러를 냈다고 밝혀진(→밝힌) Shuttleworth,

시체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먹은 혐이로 체포했어요(→체포되었어요).

다. 노래하는 작은 동물 로봇틀 시장에 나왔다(→내 놓았다).

그러나 일을 뿔나기 가지(→일이 끝나기까지) 15 분이 있었습니다.

이 골수가(→이 골수를) 밖에서 증식시켜서 다시 저에게 주었습니다.

터키어의 사동과 피동은 사동 접사와 피동 접사에 의해 거의 모든 동사가 파생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사동사의 사동 파생과 같이 이차 파생 등의 다차 파생 등이 가능함은 물론 사동사의 피동 파생도 광범위하게 출현한다. 터키어의 화자의 한국어 학습시 태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사동사의 피동 표현을 한국어로 옮길 때이다.

(7) 가. O (birisi tarafından) öldürüldü.

나. 직역: 그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여졌다/살해당했다.

다. 어떤 사람이 그를 죽였다.

라. 풍속이 이번에 Türkan 을 죽임을 당했어요(→죽였어요).

마. 풍속 때문에 Türkan 이 죽었어요.

터키어에서는 사동주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사동주를 주어로 하고, 동사를 사동사의 피동형으로 만드는 표현이 일반적인데, 한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기제가 없을 뿐더러, 문장의 주어가 사물일 경우, [유정물]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한국어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번역투의 문장이 양산된다. 태 문제는 초급 학습자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터키어에서는 광범위하게 출현하는 표현인 만큼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비유정 명사를 주어로 사용하지 않는 한국어의 특성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터키어의 부정은 동사는 '-mA'를, 형용사의 경우는 'değil'을 각각 동사와 형용사 뒤에 연결시킴으로써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데 비해, 한국어의 부정은 단순 부정과 능력 부정의 차이, 용언에 따라 단형 부정에서 부정소의 위치가 달라지거나 '안' 부정과 '못' 부정 중 하나만을 요구하는 특성 등이 있기 때문에 터키어 화자들이 한국어 부정문을 말할 때는 많은 오류가 생긴다. 터키어에 비해서 한국어의 부정 양상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오류는 아래와 같다.

(8) 가. *안 공부해요. *안 새로워요.

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어요.(능력 부정의 뜻으로)

품사 범주에서 발생하는 가장 잦은 오류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터키어의 동사는 시제, 태, 부정 표지가 직접 붙고 형용사는 직접 붙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는 시제, 태, 대우 등 거의 모든 문법 범주가 같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형태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형용사를 동사로 파악하여 나타나는 오류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예, *맑는다, *맑는 하늘).

국어의 동사와 형용사에는 '하다' 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는데, 주로 초급 단계의 초기이지만 '하다' 동사가 아닌 동사들의 활용에 '하'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과거 시제 표지 자체를 '-었-'이 아닌 '-했-'으로 파악하는 경우다(예, *먹했다, *읽했다). 터키어의 형용사는 'olmak'을 연결하면 동사로 된다. 예를 들어 형용사인 'güzel(좋다, 예쁘다)'은 'güzel olmak(좋아지다, 예뻐지다)'처럼 동사로 쓰이는데, 초급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좋다'를 형용사 'güzel'이 아닌 'güzel olmak'으로 파악한다. 이것 역시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에서 닮은꼴을 취하기 때문이다.

터키어 화자들에게 발생하는 오류로는 보조용언에 관한 것도 많다. 우리말의 보조 용언은 시상, 서법, 양상 등 해당 언어를 잘 파악해야만 정확한 사용이 가능한 문법 범주를 담당하고 또 담화와 관련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초급 한국어 학습자가 정확하게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보조 용언이 이름 그대로 보조적이지 않아서 쓰지 않으면 그 문장이 어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비문을 쓰게 할 수는

없다는 측면과 중급 단계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라도 올바른 보조 용언의 사용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접속문에서 접속 어미의 잘못된 사용도 광범위하게 읽어 난다. 접속 어미 중에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어/아)서'와 '-(으)니까'와 같이 구분과 설명이 어려워 초급 단계에서는 다루기 거북한 것도 있지만, 시간에 관련되는 '-고'와 '-(어/아)서'와 같이 간단한 차이로 말미암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속 어미들은 정리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9) *한국에 가고(→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고(→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시간과 관련하는 '-고'는 선행문의 내용이 계속될 때 사용되고, '-(어/아)서'는 선행문 내용이 끝나고 후행문 내용이 시작되는데 사용되는 '-(어/아)서'로 교체되어야 한다.

4. 어휘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적당한 어휘를 몰라서 풀어 쓰거나 어색한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다. 초급 단계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으나, 전문 용어를 몰라서 그 개념을 풀어 쓰는 것은 대개의 경우 한국어 학습이 어느 정도 진척된 경우다.

비슷한 표현의 경우에 우리말에서는 다른 동사를 사용하는데 터키어에서는 같은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말할 때도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모자를 쓰다, 안경을 쓰다, 장갑을 끼다, 목걸이를 하다/차다, 옷을 입다, 양말/신을 신다'의 '쓰다, 끼다, 하다/차다, 입다'는 터키어로 'giymek(입다)'이란 동사 하나가 모든 경우에 쓰이기 때문에 터키어 화자들은 위의 표현은 모두 '입다' 동사를 써서 '*모자를 입다, *안경을 입다, *장갑을 입다, *목걸이를 입다, *양말/신을 입다'로 쓰는 경우가 있다. 특수 격지배 동사와 마찬가지로 목록화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한편 터키어의 동사의 쓰임과 한국어 동사의 쓰임이 달라서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터키어의 'gelmek'은 우리말의 '오다'에 해당되는데, 그 쓰임은 사뭇 다르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집에서 전화를 걸어서 곧 간다는 것을 말할 경우, "evet, şimdi geliyorum(예, 지금 오겠습니다)"라고 사용하는데, 이러한 터키 동사 'gelmek'의 용법이 한국어 동사 '가다'를 써야 할 경우에도 쓰인다. 따라서 한국어의 '가다'와 '오다'는 화자를 기준으로 대상이 멀어지는 경우에 '가다'를, 대상이 화자에 가까워지는 경우에 '오다'를 쓴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어휘에 대한 오류는 물론 기초 어휘도 있으나, 대부분 초급 단계를 벗어난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서는 초급 단계에 잘 나타나는 보기를 몇 개 더 제시한다.

(10) 30년 전에 담배를 피우기를 그만 둔(→끊은) Richard 이 ...

강도가 Izmir 에서 항복했습니다(→자수했습니다).

핸드폰이 칩니다(→올립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집을 잃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전기가 없었다(→끊어졌다).

김밥에(의) 자료(→재료)가 뭐예요?

5 결론

이상에서 터키어 화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자주 발생하는 오류 중에서 초급 단계에서 거론할 만한 것들을 제시하고 가능한 경우 적절한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경우, 아직까지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별 내용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고, 학습자의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조절도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일본인과 같이 한자문화권에 속하면서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한국인을 접할 기회나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우와 터키인과 같이 한자 문화권도 아니고 교육 현장 이외에 다른 곳에서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9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연구도 없지 않으나, 이 연구들이 대부분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등에 치중되어 있고, 특정 언어에 치중된 논의가 아니다 할지라도 많은 언어권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논의이기 때문에 각 언어의 특성이 간과되어 있다. 한편 각 언어권 화자를 대상으로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한 개인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지식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법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 현상이 지대함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잘 알려져 있는 바이므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이른바 중요 언어권이 아닌 주변 언어권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함을 알림과 동시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이 가능해지는데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제열 (2001) 한국어 교육에서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 교육} 12-1
- 남기심 고영근 (1993) {개정판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서울대 어학연구소 (1991) {한국어 1, 2, 3} 서울: 서울대 출판부
- 연세대 한국어학당 (1992) {한국어} 1, 2, 3, 서울: 연세대 출판부
- 이상직 (1999) 한국어의 표준발음과 음운현상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이익섭·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 이지영 (1995)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Ⅱ: 조사 {자하어문논집} 9-10
- 이희철 (2001) {오스만제국과 터키사} 서울: 도서출판 펴내기
- 정재훈 (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교수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최길시 (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서울: 태학사
- 허 용 (1999) 한국어 학습에 나타나는 오류 분석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Corder, S. Pit (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Gencan, Tahir N. (1979) *Dilbilgisı*(언어학), Ankara: Türk Dil Kurumu(터키 언어 학회)
- Johanson, Lars, and Éva Á. Csató (eds.) (1998) *The Turkic languag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im, Seong Ju and Ertan Gökmen (in press) *Kore Grameri*(한국어 문법) Ankara: Ankara Universitesi Yayınevi(앙카라대학 출판부)
- Kornfilt, Jaklin (1997) *Turkis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Underhill, Robert (1976) *Turkish Grammar* Cambridge, Mass.: The MIT Press